

근현대사 특강 천도교와 고종

황제 뜻으로 세운 보성학교, 최대 항일 조직 천도교가 인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1904년 2월 6일 일본이 일으킨 러일전쟁은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10년 전 청일전쟁 때보다 몇 배나 되는 병력 (109만 중 전쟁 투입 30~50만)과 남·서해를 누비는 대형 군함의 위용은 충격적 자체였다. 대한제국은 제3국인데도 전쟁터가 되고 사전에 포고한 전시 중립국 선언은 침략군의 군화에 짓밟혀 무용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할 것인가.

일본제국은 1905년 5월 전승 후 전시 병력을 한반도에 잔류시켜 그 무력으로 보호조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았다. 고종은 1906년 6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조약의 불법 강제를 폭로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만국평화회의는 특정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일본제국의 침략 극복 문제는 고스란히 한 민족 자신의 몫이었다. 여러 형태의 노력 가운데 동학·천도교가 국가원수 고종에게 보인 무언의 지원 관계는 국민의 성장이란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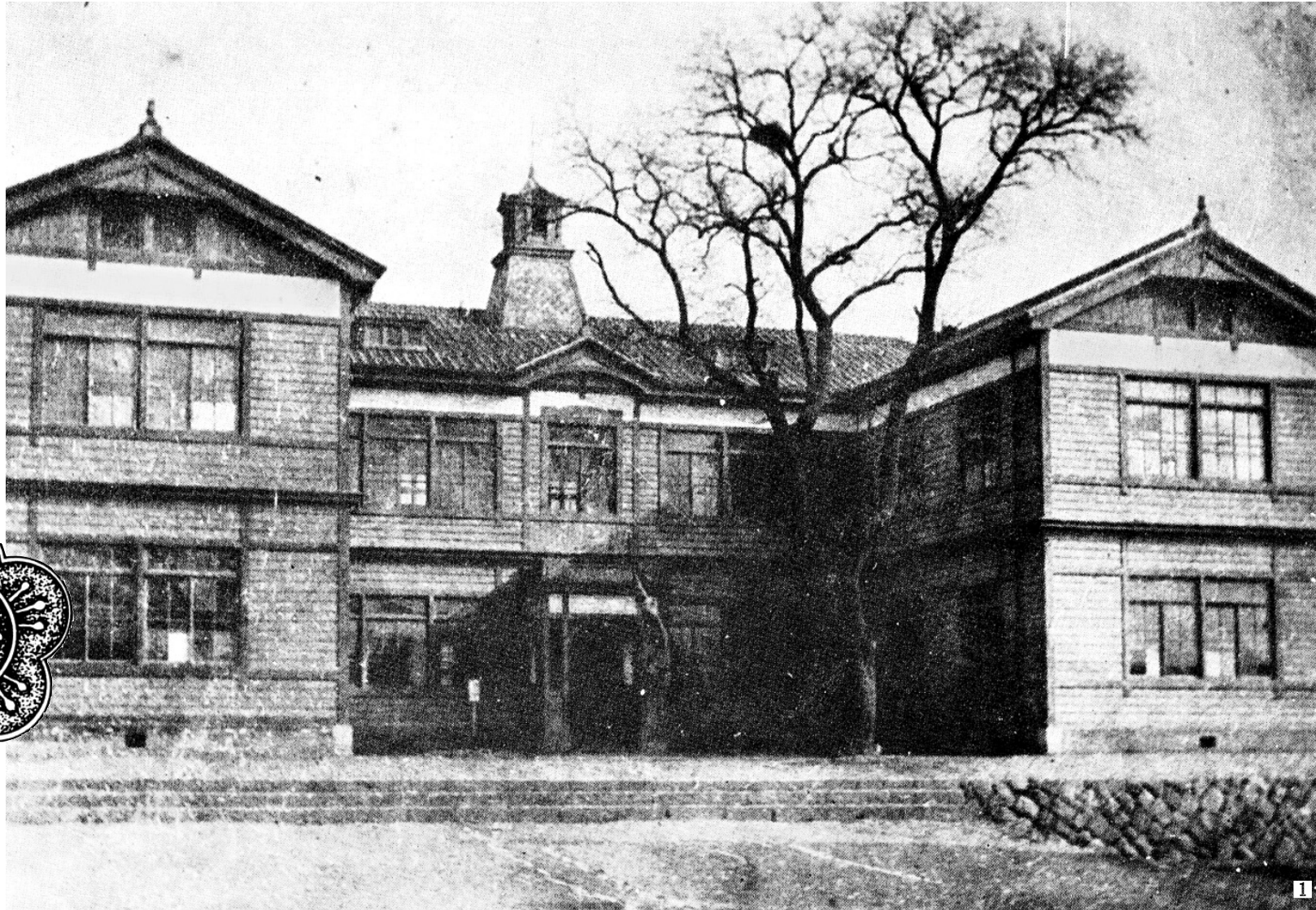


황실 특파유학생 출신들 3·1운동 주도
서울에 진입한 일본군은 황제의 최측근 이용익, 김영수, 이학균, 현상건 등을 수배했다. 김·현·이 3인은 산동반도 취포로 피하였으나 이용익은 일본군에 잡혔다. 일본군은 그를 군함에 태워 일본으로 데려가서 '만유(萬遊)'란 9이름으로 이곳저곳 둘러보게 했다. 이용익은 교육시설을 선호하여 살펴보고 12월에 귀국하였다.

그가 돌아오기 두 달 전 황제는 '황실 특파유학생' 50명을 선발해 일본으로 보냈다. 분노를 삼키면서 오늘의 일본의 위세를 살펴 배울 것은 배워 내일을 대비하자는 취지였다. 귀국한 이용익은 황제에게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을 건의하였다. 황제와 이용익의 뜻은 궁교롭게 교육 육성에 집중했다. 황제가 이용익의 건의를 받아들여 세운 보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 되었고, 황실 특파유학생 50명 중 최남선, 최린, 조용은(조소앙), 한상원 등은 15년 뒤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이 되었다.

1895년 2월 '교육조령' 반포 후 법관양성소, 의학교, 외국어학교, 광산학교 등 기술 교육을 위한 전문학교를 세웠으나 여러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대학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었다. 1905년 5월 개교한 보성학교는 법률·이재(경제)·농학·상학·공학 등 5개 전문학과를 두고 50~80명을 뽑아 가르쳤다. 대학으로 손색이 없었다. 도서관과 출판사를 시설하고 1906년 9월에는 산하에 중학교도 개설했다. 다만 일본 측의 황실에 대한 심한 견제로 이용익을 설립자로 내세워야 했다. 모든 비용이 황실에서 나왔으나 사립학교가 되어야 했다. 고종은 황실 사람들에게도 학교를 세우게 하고 각 고을에 소학교 설립 모금을 위한 종자돈으로 소액의 하사금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이용익은 1906년 다른 밀명으로 유럽으로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의 독립운동 세력 거점을 방문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거기서 사망하였다. 보성학교는 손자 이종호에게 맡겨져 운영되다가 1910년 12월 천도교 대교주 손병희가 인수했다. 황제가 특별한 뜻으로 세운 대학을 천도교가 인수한 것은 예상 일이 아니었다.



1 보성전문학교 건물. 2 보성전문학교의 황실 문장 오얏꽃을 사용한 교표. 3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

[중앙포토], [사진 고려대학교 70년지]

손병희는 1894년 후반기 동학 농민군 항쟁 때 북쪽(北, 충청도) 소속으로 남쪽의 전봉준과 함께 일본군, 김홍집 괴뢰 내각이 보낸 관군 등과 맞서 싸우다 패하여 원산, 관서 지방으로 피신했다. 그는 무너진 교단 재건과 포교 활동에 매진하여 제2대 교주 최시형의 신임을 받아 1897년 제3대 교주가 되었다. 이듬해 최시형이 처형된 뒤 교주 역할을 행하면서 교단의 전통적 운영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1901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오세창, 권동진, 박영효, 조희연 등 동지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동학을 근대적 종교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손병희는 이를 교단 재건의 기회로 삼아 진보회(進歩會)를 결성하여 '단발 흑의 운동'을 벌였다. 국내의 이용구가 나서 교도들이 '상투를 자르고 검은 옷을 입고' 민족 개화를 표방하는 운동을 벌이게 했다. 20만 명의 동학도들이 참여하여 단합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용구가 일진회로 일본에 부역함으로써 운동은 중단되고 말았다.

1905년 12월 1일 자 '제국신문' 1면 머리에 손병희가 천도교 '천도주(天道主)' 자격으로 특별한 광고를 냈다. 천도교는 내년 2월부터 교당을 짓는다는 광고였다.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첫 대의 광고였다. 손병희는 광고에서 모든 종교는 자유 신앙인 것이 만국 통례이며, 교당을 짓는 것도 자유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제 종교단체의 일반 예를 따르니 탄압을 가하지 말라는 선언이었다. 천도교는 근대적 종교의식으로 주문(呪文) 정수(淨水) 시일(時日) 때주(때주) 일요일(日) 집회(集會) 성미(誠米) 식량(食糧)의 10분의 1을 아껴 교회에 내기) 기도 등 다섯 가지 의식을 정해진 도들이 지키도록 했다. 천도교는 갈수록 신도가 늘어 1910년대에 300만을 헤아렸다. 성미 제도는 교단의 재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천도교는 나라 안 최대 조직이 되었다.

일본 견제 피하려 이용익 앞세워 황실 비용으로 최초의 대학 설립 고을 소학교 세울 종자돈 지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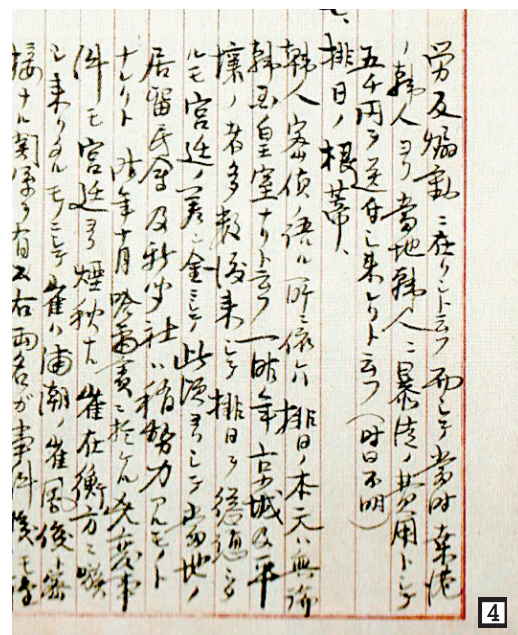
동학 이어받은 근대 종교 천도교 "황실 존중하고 독립 공고히 할 것" 고종 근대적 인재 양성 뜻에 부응

동학·천도교 근왕 정신으로 대일 항쟁 손병희는 1906년 1월 귀국 후 1895년 2월 고종이 내린 '교육조령'의 목표에 이바지하려는 듯 민중 계몽과 교육사업에 전념했다. 나라 주인이 된 서민 대중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였다. 1904년 진보회 강령의 1항은 "황실을 존중하고 독립 기초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학 교단이 1894년 봉기 때 보였던 근왕(勤王) 정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다짐이었다. 손병희는 '대한민보', '대한제국 민력회(民力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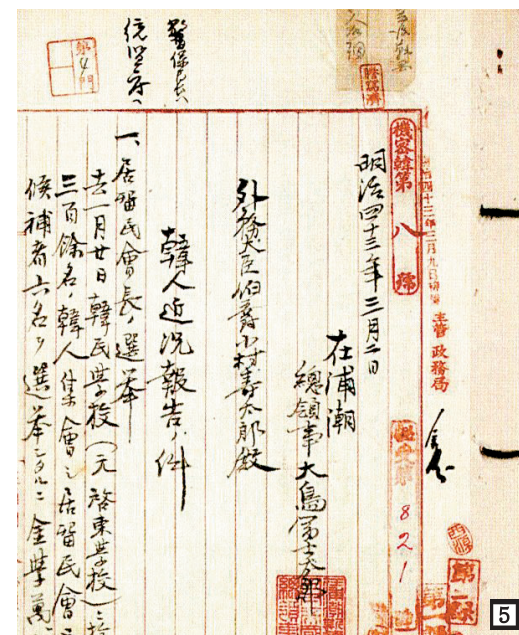


2019) 동학교도와 근주(近州) 오간 오간 무언의 신뢰와 교원은 25년 세월에도 변함 없었다.

1922년 손병희가 사망하면서 천도교는 교단 운영에 위기를 맞았다. 최린 등 일본 유학 출신들이 '타협적' 문화 운동을 벌이면서 동학 출신들은 일선에서 밀렸다. 손병희로부터 4대 교주로 지명받았던 박인호를 중심으로 동학 출신들이 문체부·구파의 대립이 일어났다. 동학 계통의 구파는 1926년 순종 황제 국장을 계기로 일어난 6·10 만세운동, 1927년의 신간회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천도교의 항일 운동은 황실의 의친왕과 협력하면서 1929년 구파의 청년동맹 조직 운동이 사전에 발각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구파를 지지하던 많은 신도는 보천교 등 이른바 '유사 종교' 형태로 민간 속에 잠입하여 항일 투쟁을 이어갔다. 국민국가는 선출제 국가원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형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왕정을 입헌군주제로 바꾸어 성립한 경우도 많다. 동학·천도교는 시종 근왕 정신으로 대일 항쟁을 벌여 당당한 근대 국민국가 국민의 모습을 보였다. 계급투쟁 사관으로는 읽어낼 수 없는 귀중한 역사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4, 5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오시마 총영사가 고무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한인 근황의 보고' (1910.3.2)의 7항 '배일의 뿌리'는 "한인 밀정의 보고에 따르면 배일의 근원은 한국 황실이며 작년 10월 하월민 흥변도 궁정으로부터 지시가 와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 외무성 소장 '이토공 만주시찰 1건 별책 11' [사진 이태진]



이태진 학술원회원, 진단학회 회장, 역사학회 회장, 학술단체연합회 회장,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고종 시대의 재조명'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 등 다수가 있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